



보도시점

2026. 6. 24.(수) 15:00

배포

2026. 6. 24.(수) 09:00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하는 2030청년 자문단 소통간담회 개최

-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농식품 분야 현안 및 현장 애로·개선사항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24일(수) 오후 11시 30분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제3기 2030청년 자문단과 함께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 2030청년 자문단은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청년참여 자문기구로, 단장인 청년보좌역을 포함하여 농업·농촌 및 농식품 분야에 관심이 많은 20대, 30대 청년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격식 없는 분위기에서 오찬, 자문단 활동 성과보고 및 정책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정책 토의 시에는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직접 선정한 주제인 ‘농촌거주 청년이 느끼는 고립감’에 대한 발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 현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하였다.

송 장관은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2030청년 자문단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044-201-1531)
		담당자	사무관	최수연 (044-201-1532)